

## 철학사입문코스Ⅳ

### 제10강 칸트와 독일관념론

#### 제10강 1교시

##### ◆ 칸트의 사상

##### ▲독일관념론

당시의 독일은 프랑스 대혁명이나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을 철학이나 음악, 문학 같은 문화로 표현한다.

⇒ 독일 고전문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 중의 하나이다.

예) 칸트, 헤겔의 철학이나 베토벤의 음악, 괴테, 실러, 뢰넬린의 문학

⇒ 프랑스로부터 사상과 독일관념론은 사회적인 역할과 철학적 깊이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프랑스로부터 사상은 실제 세계를 바꾸었지만 철학적으로는 조잡하고 독일관념론은 아직 오지 않은 세상에 대한 마음일 뿐이지만 철학적 깊이는 대단히 깊었다.

칸트는 인식에 있어서의 정신의 역할, 주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칸트에 이르면 인간의 주체성subjectivity이 살아나게 되고 ‘의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다.

⇒ 이 시대에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심리학이 처음 생겨난다.

**영혼은 실체이지만 의식은 실체라기보다는 기능이나 능력이었다.**

칸트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외부의 인상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이미 주체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의 사유는 **선험적 주체transcendental subject의 사유**이다. 선험적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경험을 하기 전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 <종합과 구성>

칸트는 기본적으로 영국경험론의 연장에 있는 사람이었다. 대상이 있고 내가 경험한다고 보지 않고 내 의식이 대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칸트의 인식론을 **구성주의**라고 한다.

“인식은 경험과 더불어 시작하는 것이지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 ▲아프리오리한 종합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

### 1) 분석판단

분석명제의 예)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경험과는 무관한 판단, apriori한 분석판단이다. 논리적 필연성logical necessity을 가진다. 하지만 어떤 사실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 2) 종합판단

종합명제의 예) 시청 앞에는 분수가 있다.

경험이 필요한 판단이다. aposteriori한 종합판단이다. 논리적 필연성을 갖지 않지만 우리에게 사실fact을 알려준다.

전통 형이상학은 세계를 너무 아프리오리한 것으로 쉽게 이야기했다. 칸트는 내용 있는 지식을 주면서 동시에 보편성과 필연성을 갖춘 인식이 있는데(고전역학, 고전물리학)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묻는다.

⇒ 아프리오리apriori한 종합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 다시 말해서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종합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묻은 것이다.

흠은 우리가 경험에만 충실하는 한에서는 보편적 필연적인 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본다. 단지 개연성이 높은 사실을 알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칸트는 인간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어서 그 틀을 가지고 현상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편성과 필연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러한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것이다.

<칸트의 인식론이 유효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칸트가 만약 자신의 인식론이 단지 고전역학에 대한 인식론이라고 말했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그는 그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인식론이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 ▲감성과 오성

칸트는 감성에 아프리오리한 형식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이 시간과 공간이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그것들은 의식 속에 들어와서 정돈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렬되어 들어오는 것이다.

오성의 틀→범주

예) 수박이 딸기보다 크다. 하지만 인간에게 공간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딸기와 수박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 **인과율causality**이라는 범주가 없다면 비가 내린 사건과 땅이 젖은 것이 연관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원인 결과라는 범주가 있기 때문에 범주를 통해 현상을 구성하여 비가 내려서 땅이 젖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 네 가지 범주

네 가지 범주를 각각 세 가지로 세분하면 12개가 된다.

##### 1) 양quantity

하나/단일성→철수는 남자다.(단칭명제)

모두/전체성→모든 백조는 희다.(전칭명제)

여럿/부분성→서울 사람들은 깍쟁이다.(특칭명제)

##### 2) 질quality

긍정→이 탁자는 갈색이다.

부정→이 탁자는 갈색이 아니다.

제한→이 탁자는 갈색은 아니다.

##### 3) 관계relation

실체/속성→이 탁자는 갈색이다에서 책상은 실체이고 갈색은 속성이다.

원인/결과→비가 내렸기 때문에 땅이 젖었다.

상호작용→우주의 모든 것들은 상호작용한다.

##### 4) 양상modality

가능possibility→밥을 먹을 수 있다.

실현existence→밥을 실제로 먹는다.

필연necessity→밥을 먹어야 한다.

감각은 물리적인 것이다. 그런데 내 머리 속에 동그랗다는 관념이 있다면 내가 눈으로 본 감각으로의 동그라미와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동그라미의 관념이 어떻게 일치하는가 물을 수 있다.

⇒ 감각과 오성이 아귀처럼 들어맞아야 한다. 그것을 칸트는 **도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도식해줄 수 있는 능력을 구상력**이라고 한다.

구상력Einbildungskraft→ 마음 속에서 어떤 관념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능력

⇒ 순수관념과 순수감각 사이에 그 관념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 철학사입문코스Ⅳ

### 제10장 2교시

#### ◆ 칸트와 칸트 이후의 독일관념론

변증론은 사변이성을 다룬다.

⇒ 우리는 현상계만을 인식할 수 있는데 현상계를 넘어서 물자체를 알려고 하면 이율배반에 빠진다. 신은 있다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도 말이 되고 신이 없다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도 말이 된다. 이 두 가지 입장 가운데 무엇이 옳다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서양사람들은 도덕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신이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칸트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우리가 순수이성의 세계만을 이야기하면 도덕이 성립할 수 없다. 도덕이 성립하려면 전혀 다른 세계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래서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물자체라고 이야기한 그 세계를 도덕의 세계로 가정(요청)해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법칙은 현실적 욕망들을 초월한 곳에 있다. 현실적 욕망들은 현상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도덕은 **정언명법**에 바탕을 둔다.

“언제나 당신의 행위의 준칙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언제나 모든 사람을 결코 한갓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동시에 목적으로서 대하도록 행위하라.”

⇒ 헤겔이나 마르크스는 칸트의 이러한 생각을 추상적이고 공허하다고 비판한다. 인간의 행동이란 어차피 특수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초월해 있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지평 위에서의 윤리는 공허하다는 것이다.(20세기 중엽에는 하버마스, 한나 아렌트 등을 필두로 칸트주의가 부활한다.)

칸트는 계몽사상이 부정했던 가치들을 부활시킨다. 칸트는 그의 말년에 판단력비판을 쓴다. 유기체의 합목적성. 칸트는 자연에는 단순히 기계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다. 합목적성과 미

칸트 이후에 마이몬 피히테 셸링 헤겔 등이 후기 칸트적 사유를 전개했고 관념론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정신, 관념의 역능을 보다 강조했으며 헤겔은 스피노자를 이어서 범신론적 사고를 전개했다.

**헤겔은 세계를 절대정신의 자기전개로 보았다.**(→관념적인 진화론) 이것은 자연과 역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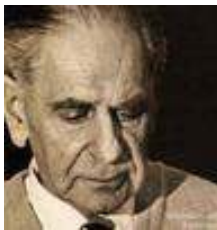
시간적인 전개가 절대정신의 실현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뜻한다. 헤겔은 정반합의 운동을 통해서 역사발전론을 전개하는데 역사는 그런 발전을 거듭해왔다는 것이다.

⇒ 형식논리에서는 모순은 그냥 모순일 뿐이지만 헤겔은 모순(모순/대립/갈등/부정)이야말로 현실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보았다. 이러한 사고는 마르크스에게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헤겔은 욕망과 다원성의 갈등과 싸움을 보다 수준 높은 공동체의 의식으로 고양시키려 한다. 헤겔은 국가철학을 전개했는데 주의할 점은 **헤겔이 말한 국가가 정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헤겔의 철학에는 전체주의적인 면이 분명 존재한다. 포퍼는 헤겔을 전체주의의 시조로 본다.

#### ▶ 참고자료

포퍼 [Popper, Karl Raimund, 1902.7.28~1994.9.14]



영국의 철학자. 《탐구의 논리》에서, 과학(지식)은 합리적인 가설의 제기와 그 반증을 통하여 시행착오적(試行錯誤的)으로 성장한다는 ‘비판적 합리주의’의 인식론을 제창하였다. ‘실수로부터 배움’으로써 진리에 접근한다는 생각은 현대의 지적(知的) 세계에 광범한 영향을 미쳤다.

출생지 오스트리아 빈      주요저서 《탐구의 논리》(1934)

최초의 저서 《탐구의 논리》(1934)에서, 과학(지식)은 합리적인 가설의 제기와 그 반증(비판)을 통하여 시행착오적(試行錯誤的)으로 성장한다는 ‘비판적 합리주의’의 인식론을 제창하였다. 그 후 이러한 기본사상을 바탕으로 사회과학론·역사론·인간론 등을 전개하였는데, ‘실수로부터 배움’으로써 진리에 접근한다는 생각은 현대의 지적(知的) 세계에 광범한 영향을 미쳤다. 이 밖에 《자유사회의 철학과 그 논적(論敵)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추측과 반박》 《객관적 지식》 등의 저서가 있다.

**독일관념론은 동북아 현대사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 이후 영국식, 프랑스식 계몽사상이 들어왔는데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민권사상이 등장하는 등 민중들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러한 민중의 세력을 누르기 위해 들어온 것이 헤겔철학이었다. 그 당시 동경대학이 만들어졌다. 동경대학은 애초부터 민권사상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학이었다. 그리고 그것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인 철학이 헤겔철학이었다. 경성제국대학교(현재의 서울대학교)는 바로 동경대학을 모델로 만들어진 것이다.